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5 No. 3, 141-147, August 2016
pISSN 2287-2531
eISSN 2466-1856
http://dx.doi.org/10.5807/kjohn.2016.25.3.141

자존감과 문제중심대처가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승우[1] · 최은숙[2]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대학원[1], 경북대학교 간호대학[2]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Problem Focused Coping on Post-traumatic Growth among Police Officers

Han, Seung Woo[1] · Choi, Eunsuk[2]

[1]Graduate School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College of Nursing ·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problem focused coping on post-traumatic growth among police officer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137 police officers in ten police offices of G city in July 2014.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using the SPSS/WIN 18.0 program. **Results:** Post-traumatic growth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and problem focused coping. Self-esteem and problem focused coping had a significant effects on post-traumatic growth. The explained variance for post-traumatic growth was 19.0%. **Conclusion:** To improve post-traumatic growth of police officers, strategies to increase self-esteem and problem focused coping are needed.

Key Words: Police officers, Post-traumatic growth, Problem focused coping, Self-esteem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총 범죄 검거건수는 140만여 건으로, 전년대비 3만여건(2.0%) 감소하였지만,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비율은 2013년 76.5%에서 2014년 78.3%로 전년대비 1.8% 상승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4). 24시간 긴장상태에 있는 경찰공무원은 범인을 검거하면서 살인, 강간, 절도, 방화, 폭력 등 다양한 외상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위험사건 및 충격에 노출되어 있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예측이 불가능한 위험사건을 동반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많은 정신적 충격과 불안 속에 살고 있다(Lee, 2010).

특히 사건발생시 일선에서 출동하는 생활안전계 경찰공무원은 그들의 고유한 업무 특성상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범죄의 예방,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명목아래 다양한 직 · 간접적인 외상사건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요어: 경찰공무원, 외상후 성장, 문제중심대처, 자존감

Corresponding author: Choi, Eunsuk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680 Gukchaebosang-ro, Jung-gu, Daegu 41944, Korea.
Tel: +82-53-420-4936, Fax: +82-53-421-24758, E-mail: eschoi2007@knu.ac.kr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연구년 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und, 2013.

Received: Jul 15, 20160 | **Revised:** Jul 25, 2016 | **Accepted:** Aug 10,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공무원의 업무에 내재되어 있는 외상성 사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과각성, 불안, 인지적인 회피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Lee, 2010).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의 발병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의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차원에서의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전까지 외상과 관련된 연구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 혹은 병리적인 증상 치료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건강을 증진하고 인간의 성장과 긍정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연구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똑같은 외상사건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심리적 고통 및 외상사건의 재 경험과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생명에 위협을 주는 물리적 충돌, 신체위협, 정신적 충격을 겪은 후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경험한다(Maereker & Zoellner, 2004). 이러한 현상을 외상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변화란 단순히 부정적인 인지적 반응의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사건의 적응 정도, 심리적 기능 수준, 혹은 삶의 자각을 넘어서는 변화를 의미한다(Jung, 2009). 이는 결국 인지적 통합을 통해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의 방향으로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Calhoun & Tedeschi, 2004). 따라서, 외상후 성장은 외상 사건에 노출되는 직업군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전략이다.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 중 외상경험 후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인자 중 하나가 자존감이다(Ahn, 2013). 자존감은 심리적 적응 및 긍정적인 인지적 조절 전략과 상관관계가 있고 위험한 사건 및 충격을 경험했을 때 자존감이 높을 경우 이러한 사건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 일을 통해 교훈을 얻게 된다(Carver et al., 1989). 또한 외상사건 경험 후 외상후 성장을 하는데 있어 자존감은 낙인이나 트라우마와 같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Kim, 2007). 따라서, 자존감은 다양한 외상사건의 보호요인으로 중요한 내적성장 요인으로 생각된다.

한편, 문제중심대처와 같은 적극적 대처방식은 외상사건에 직면하였을 때, 외상후 스트레스 혹은 소진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다(Kim, Nam, & Lee, 2014). 또한, 위험한 사건이나 환경에서 문제중심대처가 적절히 발휘될 경우, 긍정적 정서를 갖기가 쉽다(Suh, 2011). 따라서, 문제중심대처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가 아닌 외상후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기여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연구목적

현재로서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는 암과 같은 특정질환이나 질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등 실질적으로 외상을 경험하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업무상 충격적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상후 성장에 대한 자존감 및 문제중심대처의 효과를 파악하여 외상후 성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을 조사하고 경찰공무원의 자존감, 문제중심대처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7월4일부터 7월31일이며, 연구자가 G시에 있는 10개의 생활안전 경찰부서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조사 시 익명성 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설문조사 소요시간은 약 20분이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KNU 2014-0027)을 받고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 최소 표본수는 G*Power 3.1.2 (2009)에 따라 유의수준 α =.05, effect size d=.15, 검정력 1-β=.80을 기준으로 독립변수 12개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127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50부를 배부하였다. 그 중 미회수, 무응답이 많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13부를 제외한 최종 137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외상후 성장

외상후 성장은 Tedeshi와 Calhoun (1996)이 개발하고 Song

(2006)이 수정 및 보완한 21개 문항 6점 Likert척도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0점, '매우 많이 경험하였다'는 5점으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후 성장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ong (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 자존감

자존감은 Rosenberg (1965)이 개발하고 Won (1995)이 수정 및 보완한 도구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Won (199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9였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3) 문제중심대처

문제중심대처는 Carver (1997)가 개발하고 Joo (2009)가 번안한 도구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1점에서 '많이 사용하였다'의 4점으로 측정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방식 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Joo (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75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성장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 자존감, 문제중심대처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자존감, 문제중심대처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성별은 남자 89.1%, 여자 10.9%였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2.1%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31.4%, 50대 이상 25.5%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기혼이 75.2%, 미혼이 24.8%였으며,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42.3%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38.7%, 전문대 19.0% 순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47.4%로 가장 많았으며, 경사 19.7%, 순경 18.2%, 경장이 13.1% 순으로 나타났다. 교대근무형태는 4교대가 59.9%, 3교대가 27.0%, 기타가 10.9%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연수는 20년 이상이 38.0%로 가장 많았으며, 6~10년 13.9%, 11~15년과 2~5년은 각각 12.4%로 같았고, 16~19년과 2년 미만도 각각 11.7%로 같았다. 종교는 무교 53.3%, 유교 46.7% 순으로 많았다. 가구 전체 월 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이 36.5%로 가장 많았으며, 301~499만원 32.8%, 300만원 이하가 24.1%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 변수는 외상후 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2. 외상후 성장, 자존감, 문제중심대처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의 평균점수는 56.32±18.74점, 자존감은 38.23±4.87점, 문제중심대처는 17.83±2.54점으로 나타났다. 외상후 성장, 자존감, 문제중심대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외상후 성장은 자존감(r=.38, p<.001), 문제중심대처(r=.36, p<.001)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존감과 문제중심대처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36, p<.001)를 보였다(Table 2).

3.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존감과 문제중심대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외상후 성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투입변수에서 제외하였다(Table 3). 투입되는 2개의 독립변인은 공차한계가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의 자기상관성이 없고, 잔차의 상호독립성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회귀모형의 가정을 만족하였다.

첫 단계에서 자존감을 결과변수인 외상 후 성장에 회귀시켰고(Model 1), 두 번째 단계에서 문제중심대처를 추가로 외상후 성장에 회귀시켰다(Model 2). Model 1에서는 자존감이 외상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총 14%를 설명(F=23.14, p<.001)하였다. 문제중심대처를 추가한 Model 2는 두 변인 모두 외상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총 19%를 설명

Table 1. Differences of Post-traumatic Growth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3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 or F	*p*
Gender	Male	122 (89.1)	56.1±18.41	-0.35	.724
	Female	15 (10.9)	57.9±21.89		
Age (year)	<30	15 (10.9)	58.5±16.15	0.95	.420
	30~39	44 (32.1)	59.7±18.01		
	40~49	43 (31.4)	53.7±20.70		
	≥50	35 (25.5)	54.4±18.11		
Marital status	Unmarried	34 (24.8)	58.9±18.33	0.91	.364
	Married	103 (75.2)	55.5±18.88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53 (38.7)	53.5±19.60	1.60	.207
	College	26 (19.0)	54.8±16.58		
	Above university	58 (42.3)	59.6±18.64		
Position	Police constable	25 (18.2)	59.2±18.52	0.85	.495
	Corporal	18 (13.1)	61.3±18.59		
	Sergeant	27 (19.7)	55.4±15.77		
	Chief-inspector	65 (47.4)	54.0±20.11		
	Super-intendent	2 (1.5)	65.5±9.19		
Police experience (year)	<2	16 (11.7)	58.1±22.19	0.64	.671
	2~5	17 (12.4)	62.8±11.29		
	6~10	19 (13.9)	55.7±18.37		
	11~15	17 (12.4)	56.3±15.28		
	16~19	16 (11.7)	56.8±24.29		
	≥20	52 (38.0)	53.7±19.06		
Type of shift work	2 shifts	3 (2.2)	54.3±48.44	0.32	.810
	3 shifts	37 (27.0)	53.9±19.72		
	4 shifts	82 (59.9)	57.1±16.25		
	Others	15 (10.9)	58.5±22.88		
Religion	Yes	64 (46.7)	58.5±19.40	1.27	.205
	No	73 (53.3)	54.4±18.05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300	33 (24.1)	55.4±15.03	1.57	.200
	301~499	45 (32.8)	56.4±18.94		
	≥500	50 (36.5)	59.0±17.67		
	Others	9 (6.6)	44.6±31.22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Post-traumatic Growth, Self-esteem, and Problem Focused Coping (*N*=137)

Variables	M±SD	Min	Max	PTG	Self-esteem	PFC
				r (*p*)	r (*p*)	r (*p*)
Post-traumatic growth (PTG)	56.32±18.74	0	98	1		
Self-esteem	38.23±4.87	26	46	.38 (<.001)	1	
Problem focused coping (PFC)	17.83±2.54	12	23	.36 (<.001)	.36 (<.001)	1

Table 3.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Problem Focused Coping on Post-traumatic Growth (*N*=137)

Variables	Model 1					Model 2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0.15	11.77		0.01	.990	-19.97	13.12		-1.52	.130
Self-esteem	1.47	0.31	.38	4.81	<.001	1.12	0.32	.29	3.51	<.001
Problem focused coping						1.90	0.61	.26	3.11	.002
	Adjusted R^2=.14, F=23.14, p<.001					Adjusted R^2=.19, F=17.13, p<.001				

(F=17.13, p <.001)하였으며 문제중심대처가 추가적으로 5%를 설명하였다.

논 의

업무 중 경찰공무원은 높은 긴장상태로 살인, 강간, 절도, 방화, 폭력 등 다양한 외상사건을 경험하고 있어 외상경험을 긍정적인 성장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생활안전계 경찰공무원의 자존감, 문제중심대처가 외상후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함으로써 이들의 외상후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중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외상후 성장의 평균점수는 56.3점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Song (2006)의 연구의 55.8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같은 도구로 외상사건을 경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Jang (2011)의 연구의 47.9점보다도 높았다. McMillen과 Fisher (1998)는 총기사건, 비행기 추락사고와 같은 강도 높은 외상경험을 한 대상자가 대인 간의 외상 등 낮은 수준의 외상을 경험한 대상자보다 높은 수준의 외상후 성장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Calhoun과 Tedeschi (2004)도 고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외상사건 경험은 이전과는 다른 인식과 자각을 이끌어 내고, 이러한 자각이 부정적 정서, 과각성, 공포심과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로 발전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적 적응을 돕는 새로운 가치관과 자기관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건발생시 일선에서 출동하는 생활안전계 경찰공무원들은 끊임없는 긴장상태와 고강도의 사건경험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지각된 충격의 정도가 크지만 이에 반해 외상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자부심과 통제감의 상승과 같은 긍정적 적응을 돕는 가치관 또한 높게 작용하여 일반인보다는 외상후 성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외상후 성장을 높게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존감의 평균점수는 38.2점으로 같은 도구로 일반대학생의 자존감을 측정한 Won (1997)의 연구의 36.7점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경찰공무원은 타 직업군에 비해 높은 공권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지존감 향상에 작용하여 타 인구집단에 비해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같은 도구로 자존감을 연구한 논문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분석은 힘들지만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자존감을 측정한 선행연구(Kim, Nam, & Lee, 2014)에서 소방대원은 간호사보다 자존감이 낮게 나타났는데 현장상황에서 느끼는 한계성과 업무책임감이 과중될수록 자존감이 낮다는 결과로 보아 추후 업무환경 및 직업적 특성에 고려하여 연구대상 근로자 집단을 확대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문제중심대처의 평균점수는 17.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Kim, 2012)의 문제중심대처 29.1점보다 낮게 나타났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 Kim, 2013)의 17.5점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선행연구(Lazarus & Folkman, 1980)에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때는 문제중심대처를 사용하지만 개인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는 정서중심대처와 같은 회피대처기전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끊임없는 긴장상태와 살인, 강간, 폭력 등 돌발적이고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무하는 생활안전계 경찰공무원은 문제중심대처 보다는 정서중심대처나 역기능 대처와 같은 다른 대처기전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생활안전계 경찰공무원의 문제중심대처 수준을 높이는 전략과 더불어 정서중심대처와 같은 다른 대처전략을 포함하여 위험한 업무환경에서 긍정적이고 건강한 스트레스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존감, 문제중심대처가 생활안전계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자존감과 문제중심대처가 외상후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약 19%를 설명하였다. 특히, 자존감은 외상후 성장을 14%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Han & Kim, 2015; Kim, Kwon, Kim, Lee, & Lee, 2008; Lee & Kim, 2012)에서 자존감이 외상후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외상사건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에 영향을 덜 받고 자존감이 부족하면 외상후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난에 직면했을 때, 능력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다(Kim, 2007). 즉 외상의 충격을 경험하였을 때 자존감은 심리적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외상 사건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외상사건에 대해 완충작용을 함으로써 외상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im, 2007). 생활안전계 경찰공무원은 타 직업군에 비해 업무의 전문성과 치밀함을 요구하는 직업이므로, 자존감이 높을수록 사건에 자신을 개방하고 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외상후 성장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높은 공권력과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직업적 사명감을 요구하는 직업중의

하나이다. 자신의 일에 대한 긍지와 존경은 자존감과 연결되고 이러한 자존감은 자신이 소속된 직업의 긍지와 존경의 수위에도 영향을 미친다(Lee, 2015). 본 연구를 통해 자존감은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을 위해서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제중심대처는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외상후 성장을 5%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중심대처가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Choi, Kim, & Kwon, 2013; Kim, Nam, & Lee, 2014)와 유사하다. 외상후 성장에서 문제중심대처는 외상후 성장의 과정적 요소로 강조되는데, 외상 사건경험 후 적극적인 문제중심대처를 하였을 때 높은 수준의 외상후 성장 정도를 보였다(Choi, Kim, & Kwon, 2013). 문제중심대처는 스트레스나 심리적 기능에 부정적인 역할을 조절하여 자신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Yang, Oh, & Park, 2015).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개인마다 어떤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외상사건 경험 후 문제중심대처와 같은 적극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면 탄력적으로 심리적인 균형을 빠르게 회복시킴으로써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Madey & Jilek, 2012).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을 위해 경찰공무원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문제중심대처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외상후 성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른 연구(Han & Kim, 2015)에서는 외상후 성장과 성별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Nam, & Lee, 2014)에서는 연령, 결혼상태, 직급, 그리고 경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Lee & Kim, 2012)에서는 외상후 성장과 교육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를 볼 때, 일반적 특성과 외상후 성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시대가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 할수록 우리는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과 예방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사회적 인식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무관심은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적 노력과 더불어, 범죄와 싸우는 일선 경찰공무원을 위한 정신건강 예방관리도 중요하다. 최근 서양에서는 소방공무원과 같이 고위험 직군을 대상으로 스트레스관리나 소진과 같은 예방적 심리적 중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Benet, Eamonn, Lena, Adam, & Ake, 2013). 이에 우리나라도 경찰공무원과 같은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해서 예방적 심리적 중재로 자존감과 문제중심대처를 사용한 외상 후 성장 중재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G시의 10개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생활안전계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존감과 문제중심대처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자존감, 문제중심대처 모두 생활안전계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존감 향상, 스트레스대처를 반영한 외상후 성장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확인 된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주는 자존감과 문제중심대처 외에도 다른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외상후 성장에 대한 연구가 암 환자와 같은 특정 질환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고위험 직종에 대한 외상후 성장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생활안전계 경찰공무원, 버스운전기사,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과 같이 일선에서 외상을 경험하는 고위험직군으로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Ahn, J. Y. (2013). *Effects of explicit and implicit self-esteem and of meaning in life on posttraumatic growth in north Korean defe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myung University, Deagu.

Benet, B. A., Eamonn, A., Lena, B., Adam, L., & Ake, L. (2013). Assessment of a prevention program for work-related stress among urban police officers. *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86*(1), 79-88. http://dx.doi.org/10.1007/s00420-012-0748-6

Calhoun, L. G., & Tedeschi, R. G. (1996).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Measuring the positive legacy of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3), 455-471. http://dx.doi.org/10.1002/jts.2490090305

Calhoun, L. G., & Tedeschi, R. G. (2004).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New considerations. *Psychological Injury,*

15(1), 93-102. http://dx.doi.org/10.1207/s15327965pli1501_03

Carver, C. S. (1997). You want to measure coping but your protocol's too long: Consider the brief cop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1), 92-100. http://dx.doi.org/10.1207/s15327558ijbm0401_6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267-283. http://dx.doi.org/10.1037/0022-3514.56.2.267

Choi, S. M., Kim, Y. J., & Kwon, J. H. (2013). Effects of cognitive and behavioral coping and social supports on post traumatic growth: Depending on PTSD symptom severity.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3*(2), 307-328.

Han, S. W., & Kim, H. S. (2015). Factors influencing post-traumatic growth with police officer. *Crisis and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11*(3), 189-205.

Jang, H. A. (2011). *The moderation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on reflec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Joo, S. A. (2009). *A study of PTSD of the subway operators with the experience of "person under train" inci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Jung, I. M. (2009). Effect of intentional rumination and optimism on posttraumatic growth.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9*(1), 278-279.

Kim, H. J., Kwon, J. H., Kim, J. N., Lee, R., & Lee, K. S. (2008). Posttraumatic growth and related factors in breast cancer survivor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3), 781-799.

Kim, H. K. (2007). *Self-esteem and stress coping behaviors in early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Kim, H. S., Nam, C. Y., & Lee, H. J. (2014). Effects of post traumatic growth of firefighters. *Crisis and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10*(10), 103-121.

Kim, J. H., & Kim, J. K. (2013). The relation of a type of traumatic event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symptoms of police officer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 *Korean Police Studies Association, 12*(3), 27-50.

Kim, T. K. (2012). *The effect of job stress for depression in clinical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ju.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4). Survey on korea criminal statistics. Retrieved October 16, 2015, from http://www.police.go.kr

Lazarus, R. S., & Folkman,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http://dx.doi.org/10.2307/2136617

Lee, N. J. (2015). *A study on effects of service training on job esteem for airline employe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Aerospace University, Koyang.

Lee, O. J. (2010). The analysis of field police officers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symptoms for the application of police job stress reduction program.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12*(4), 1-10.

Lee, S., & Kim, Y. J. (2012). Posttraumatic growth of patients with breast canc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2*(6), 907-915. http://dx.doi.org/10.4040/jkan.2012.42.6.907.

Madey, S. F., & Jilek, L. (2012). Attachment style and dissolution of romantic relationships: Breakup is hard to do, or is it? *Individual Difference Research, 10*, 202-210.

Maercker, A., & Zoellner, T. (2004). The janus face of self-perceived growth: Toward two-component model of post-traumatic growth. *Psychological Inquiry, 15*(1), 41-48.

Mcmillen, J. C., & Fisher, R. H. (1998). The perceived benefit scales: Measuring perceived positive life changes after negative events. *Social Work Research, 22*(3), 173-187. http://dx.doi.org/10.1093/swr/22.3.173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http://dx.doi.org/10.1126/science.148.3671.804

Song, S. H. (2006).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Suh, K. H. (2011). Relationships between stresses, problem-focused coping, upward/downward comparison coping and subjective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8*(8), 217-236.

Won, H. T. (1995). Self-concepts and paranoid tendency. *The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 Soci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4*(2), 15-29.

Won, H. T. (1997). The Self-concept and attributional style in paranoid group.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6*(2), 173-182.

Yang, K. M., Oh, C. H., & Park, J. H. (2015).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management format on influence ove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n traumatic case experience of police offic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 116-128.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116